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08.03

보도일시: 2018.08.03



[주]GMR 머티리얼즈

기획조정실 ☎ 02-3452-8449(103) (peter@gmrmaterials.com)

GMR머티리얼즈 방화문 전문제조기업 바른창호 인수

코스닥상장사인 GMR머티리얼즈가 향후 성장을 위한 전략적 계획으로 방화문 전문제조업체인 바른창호의 지분 100%(자사주 20%를 제외한 80% 전부)를 인수하기로 공시했다.

거래규모는 128억원이며 2017년말 기준 바른창호의 총자산 규모는 105억원, 매출액은 161억원, 영업이익은 27억원, 이익잉여금은 87억원인 우량 회사로 차입금은 4억원 수준이다. 또한 현재 매출 확대에 따른 생산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공장 이전을 추진중이며 2019년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공장 이전이 완료되면 현재 생산량의 2.5배 이상 생산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매출 및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MR머티리얼즈는 철스크랩 사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지만 계속해서 철강산업 및 철스크랩 산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사업의 다각화를 위한 경영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우량기업의 M&A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왔으며 금번 계획했던 대로 경영진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른창호는 2000년 설립되어 19년 동안 운영되며 경쟁력을 갖추고 꾸준히 성장해온 회사로 시장에서 이미 검증 받은 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철강분야에서 강점이 있는 GMR머티리얼즈의 인수로 인하여 철강을 원재료로 하는 방화문 사업의 원가부문에서도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MR머티리얼즈가 수출전문 기업인 만큼 현재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수출 시장 공략에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금번 바른창호 인수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경영전략을 세워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회

사 성장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겠다”고 설명하면서 “회사는 이외 또다른 사업으로 석유유통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마용배 상무(☎02-3452-8449/103)에게 문의 바랍니다.